

문학수첩, <드룬의 비밀> 시리즈 펴내

초등학교 저학년용 해리포터풍 판타지 동화

문학수첩에서 판타지 동화 <드룬의 비밀> 시리즈 1차분을 펴냈다. 이 시리즈는 미국 스크라스트 출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기획, 출간한 판타지 동화다. 이 시리즈는 지난해 미국서적상협회가 엄선한 '해리포터풍'(potterresque) 판타지 10선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드룬의 비밀> 시리즈는 에릭과 닐 그리고 줄리 등 세 친구가 에릭의 집 지하실 계단 밑에서 우연히 현실과 다른 낯선 세계(드룬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세 친구가 키아공주를 도와 드룬의 세계를 차지하려는 못된 마법사 스파대공과 싸우는 것이 전체 줄거리다. 세 친구는 납치된 키아공주를 구출하고, 스파대공이 훔쳐간 신비한 보석을 찾기 위해 화산구전과 신비의 섬, 구름 속의 도시, 기억의 탑 등 마법의 공간을 여행한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환상적인 모험이 가득찬 오락적 요소와 등장인물들의 독특한 캐릭터. 스파대공과 싸우는 과정에서 닐이 마법에 걸려 딱정벌레로 변하기도 하고, 줄리가 두더지족의 공주로 칭송받기도 한다. 또한 자상하고 용감한 에릭, 꼼꼼하고 재치있는 줄리, 엉뚱한 닐 등 등장인물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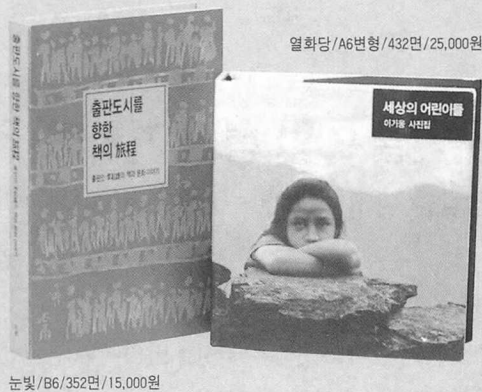
문학수첩/A5신/각 104면/각 5000원

성이 뚜렷하다. 날아다니는 도마뱀, 거미인간 등의 요정과 이상한 벌레 등 다양한 캐릭터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만하다.

이번에 출간된 1차분은 <숨겨진 계단과 마법의 용단> <화산 궁전으로의 여행> <신비의 섬> <구름 속의 도시> <얼음 대전쟁> <잠자는 거인> 등 6권이다. 지은이는 <무서운 아이들> 시리즈, <신비한 나라> 시리즈 등을 집필한 토니 에버트며, 시인과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성귀수씨가 옮겼다. — 김정은 기자

이기웅씨, 30년 출판인생 담은 문집과 사진집 출간해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과 《세상의 어린이들》



열화당/A6변형/432면/25,000원

눈빛/B6/352면/15,000원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이기웅 이사장(열화당 대표)이 30년 출판인생을 정리하는 문집과 사진집을 나란히

상재했다.

문집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눈빛)은 그가 출판계에 입문한 후 써 온 출판론과 출판시론, 에세이, 여행기, 독서편력기 등 그의 출판인생과 철학을 담은 글을 한데 모았다. 아울러 출판도시의 구상단계부터 추진과정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글도 수록했다. 부록에는 문학평론가 김병익씨, 작가 조세희씨, 일간지 기자 등 주변 사람들이 본 이씨의 인물평을 실었다.

이씨는 이 책에서 출판이 "무한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는 상업주의 시장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 시대의 소명의식을 갖고 책만들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집 <세상의 어린이들>(열화당)은 그가 지난 20여년간 국내외 여행길에서 만난 어린이들을 찍은 작품 230여점을 실었다. 경주·진도 등 국내에서 만난 어린이들부터 네팔·스웨덴·헝가리 등 세계 각지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1980년대 중반 이씨와 함께 국토여행을 했던 작가 조세희씨는 머리말에서 "이 사진집에는 넓고 깊고 큰, 그러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사랑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은 사진가 강운구씨가 선별, 편집했다.

이번 문집과 사진집은 한 개인의 저서를 두 출판사에서 동시출간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문집은 이씨의 갑년(甲年)을 맞아 그의 제자이자 옛 열화당 직원인 눈빛 출판사 이규상 대표가 펴냈고, 사진집은 열화당에서 발행했다. — 김정은 기자